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삼각벨트 ‘박차’

진국·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
‘미래차 3각 벨트’ 완성
4대 추진 전략 ‘A.U.T.O’ 실행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도약

광주시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제2 생산도시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두뇌’로 진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2035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고용 창출 2000명,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전문기업 10개 사 배출을 목표로 하는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진국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을 잇는 이른바 ‘미래차 3각 벨트’의 완성과, 이를 뒷받침할 4대 추진 전략인 ‘A.U.T.O’의 실행이다. 이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선 산업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며, 광주가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승부수다.

광주 미래차 산업 육성의 골자는 지역 내 흩어진 산업단지들을 기능별로 특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연구개발(R&D)부터 생산, 인증, 실증, 그리고 수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진국일반산단은 ‘부품 생산 기지(Manufacturing Core)’로 재편된다. 기존 686개에 달하는 내연기관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전조기지로 육성된다. 단순 금형·가공 위주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센서, 제어기, 통신 모듈 양산 라인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전장 부품 생산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빛그린국가산단은 ‘인증 및 완성차 거점(Certification Core)’으로 거듭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연계된 완성차 생산 지원은 물론, 부품 인증의 메카가 된다. 이미 구



새벽시장 추위에 장작불이 최고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 한파에 4일 새벽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작불 앞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다.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 한파에 4일 새벽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작불 앞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축된 총 230조 규모의 친환경차·배터리 시험평가 장비를 활용하며, 올해부터 본격 착수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자율주행 안전성능평가 인증센터’를 통해 기업들에 원스톱 인증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래차국가산단은 ‘실증 및 신기술 거점(Demonstration Core)’이다.

2023년 신규 지정돼 최근 국가전략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그린벨트 규제까지 해소된 이곳은 3.3㎢(100만평) 규모의 실증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Lv.4+ 자율주행 기술의 실제 도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AI 모빌리티 국가

시험도시’와 연계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실험장(Living Lab)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에서는 일반 내연차량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자율주행 차량만이 주행가능한최첨단 산단을 지향하고 있다.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GAMA)은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자율주행 선도도시, AUTO-광주’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4대 핵심 추진 전략(A.U.T.O)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각 알파벳마다 구체적인 대책 과제와 예산이 매칭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4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2026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4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품격 높은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4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6년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6년 2월 25일까지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23

光州日報社

뛰는 결혼물가에 축의금 얼마 내야 하나 ▶6면

KIA 토종 에이스 양현종 45억에 계약 ▶18면

글로벌 여행 성지 전남 - 체류형 관광지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연말 결혼식장 구하기 ‘별따기’ ... 광주 혼인·출생아 수 증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면서 감소 추세였던 결혼과 출생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역 예식장 대부분은 선호 시간대 예약을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고, 일부 식당은 내년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다. 4일 광주지역 예식업계에 따르면 단독홀을 보유한 광산구 M예식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예약이 대부분 가득 차 2027년 예약을 함께 안내·접수하고 있다. 서구의

D예식장도 내년 토요일 전체 시간대가 마감돼 지난 7월부터 2027년 토요일 예약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 혼인 증가는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서도 뚜렷하다. 올해 1~9월 광주 혼인 건수는 45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182건)보다 8.6%(358건) 증가했다. 광주 혼인 건수(1~9월 기준)는 9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 지난 2023년부터 3년째 증가 추세다.

혼인 건수가 늘면서 출생아 수도 덩달아 늘었다.

광주 출생아 수(1~9월 기준)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4878명이 태어나면서 지난해보다 7.0%(319명) 증가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외로움을 느낀 젊은 층이 가족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혼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OK! Now Jeonnam

전라남도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